

## 서울역, 영등포역 노숙인 One-Stop 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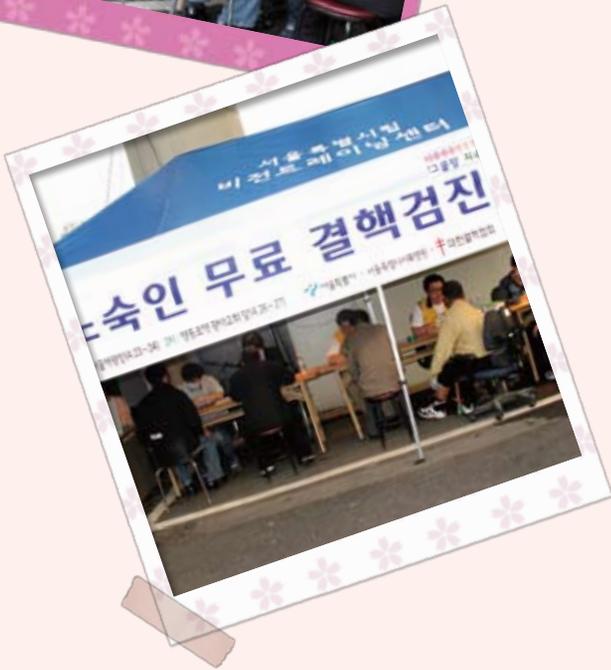


이번 노숙인 결핵 검진은 발견된 환자의 치료와 퇴원 후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어, 노숙인 자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협회 중앙지회는 4월 23~24일, 4월 26~27일 각각 서울역과 영등포역 일대에서 거리 노숙인 검진을 실시했다. 노숙인 검진은 매년 2차례 서울시와 서울특별시립서북병원, 서울역무료진료소, 다시서기상 담보호센터 등 14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고 있다.

검진 둘째날인 4월 24일 오후 6시경, 서울역은 검진을 받기 위해 줄선 이들로 북적였다. 평소 병원에 갈 기회도, 의지도 없는 노숙인들에게 이러한 무료 검진은 건강에 대해 점검 받아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물론 기회가 있어도 검진 자체를 꺼리는 노숙인들이 많다. 노숙생활을 하며 얻은 병이 한 두 개가 아닌 이들에게 결핵이 특별한 질환은 아니다. 그저 자신이 안고 사는 수많은 병 중의 하나일 뿐……. 그러나 공공 보건 문제에서 이들의 병, 특히 결핵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나마 간단한 저녁식사로 제공되는 샌드위치는 그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병을 찾아내고 적합한 치료시설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다.



4일간 총 307명의 노숙인 결핵검진을 실시한 결과 과거 폐결핵을 앓았던 비활동성 폐결핵이 38명이나 되었다. 현재 폐결핵경증, 혹은 의심자도 21명이나 되었으며 그밖에 폐기종, 기관지염, 폐렴 등 호흡기질환이나 폐석회화 늑막비후, 척추측만증 등 다양한 질환을 안고 있었다. 검진을 통해 발견된 결핵환자는 서북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며 그 밖에 질환자들도 관련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받게 할 예정이다.

### 전염병인 결핵

검진을 받는 사람도, 검진을 하는 사람도 양쪽 모두 쉽지 않은 노숙인 검진 사업. 결핵사업에 대한 오랜 연륜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특히 노숙인 검진에 있어 결핵검진은 매우 중요하다. 장기복약치료가 필수적인 결핵은 거리 노숙들에게 치료하기 힘든 질병이다. 그래서 이들은 결핵에 취약자인 동시에 전염원이 될 수 있다.

이번 검진은 현장에서 전문의가 엑스선 촬영 후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결핵 의심자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밀진단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게 된다. 정밀 진단 결과 결핵 양성반응자에 대해서는 퇴원 후 완치 때까지 투약과 영양식 공급, 쪽방 지원 등 집중관리 및 독립생활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일자리 제공 등 사후 지원도 받게 된다.

### 노숙인 밀집지인 서울역과 영등포역

서울역과 영등포역은 오래 전부터 노숙인의 밀집지역으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11년 7월부터 코레일은 시민 불편 해소와 범죄예방 방지를 이유로 노숙인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울역 시설을 내 집 삼아 이용해오던 노숙인들에게는 날벼락과도 같은 일. 인근 노숙인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노숙인들에게겐 목숨과도 같은 자유를 빼앗기는 큰 결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된 결핵 검진은 발견된 환자에 대해 치료와 퇴원 후 문제까지 해결돼 노숙인 자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장기간 노숙생활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결핵까지 얻게 된 노숙인들에게 이번 검진으로 삶의 한 줄기 희망이 전해지길 기대해본다. †